

선미촌 정비, 시민의견 귀담아

민관협의회 정기회·잡담회서 올해 성과 공유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재생산업추진하는 가운데, 올 한해 활동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시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공동대표 조선희, 김기경)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 20명과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 정기회 및 잡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올 한해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전주문화재단,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시 등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의 주요 참여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동네잔치, 워크숍, 견학 결과보고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또, 질의응답을 통해 활동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기회가 끝난 후에는 '여성인권과 예술은 어떻게 만나는가?'를 주제로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이 함께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의 필요

성과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잡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장근범 사진작가와 이현정 작가가 각각 '왜 예술인가?'와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서안이 전주시의원과 장걸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은총 이상한계절(음악가)이 참여하는 토론 회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4년 2월 발족해 활동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도의원, 예술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를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난 2015년 지속발전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주

다올마당 공유한마당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민관협력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 예술가, 언론인,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의와 꾸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는 총 사업비 74억이 투입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48억이 투입되는 업사이클센터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선미촌에 대한 점진적 기증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2017 완주 로컬에듀 포럼이 최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주 로컬에듀 포럼 성료

교직원·학부모·주민 등 500여명 한자리

2017 완주 로컬에듀 포럼이 최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500명이 참여했다.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과 완주군 박성일 군수는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양대 행정기관의 교육정책과 대안을 이틀 교육주제 앞에서 직접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두 달간 완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토크' 결과를 안내하고 로컬에듀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

최된 것.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았다.

공감토크에 그동안 약 1500명의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그리고 완주의 꿈인 로컬에듀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고 지역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가에 대하여 의견을 토론했다.

포럼은 로컬에듀 실현 방안에 대

한 패널 및 객석의 청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학교)쪽 패널은 박숙자 완주교육장, 강진석 고산고 학생회장, 김순덕 구이중학교 교사가 참여했으며 지역(마을)쪽 패널은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순 학부모 회장, 김주영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은 지난 2014년부터 완주군과 함께 로컬에듀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다. 로컬에듀는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교육 주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운동이다.

박숙자 교육장은 "교육주체의 의견을 교육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교육과 지역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교대 교육대학원

신입생 188명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원장 최홍규)은 11월 2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2018학년도 신입생 188명을 모집한다.

모집전공은 야간제 10개(초등사회교육, 초등영어교육, 초등교육행정및정책, 교육방법및심리, 초등교육상담, 초등특수교육, 초등무용교육, 국악교육, 전통미술·공예, 창의정보융합교육)와 계절제 14개(초등도덕교육, 초등국어교육, 초등사회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실과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미술교육, 초등체육교육, 초등컴퓨터교육, 초등교육상담, 초등교육행정및정책, 영재교육, 교육연구)이다.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은 다양한 자격증 취득 혜택(초등학교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등)과 장학제도(성적우수장학, 기계공관장학, 공모장학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www.gs.jnu.ac.kr)나 교육대학원(☎ 063-281-70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항공우주시스템 공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강명철 대학원생 영예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원 강명철 대학원생(박사과정·사진)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강 대학원생은 막강 이산화물을 첨가하면서 압전 세라믹(전기를 가하면 힘을 내고, 반대로 힘을 가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재료)의 성능 변화를 측정하여 센서 감도 및 작동 성능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세라믹을 개발한 연구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 결과물은 비파괴 검사에 사용되는 초음파 탐촉자의 개발과



진동 제어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원 강명철은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스마트 재료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첨단 비파괴검사기술에서부터 스마트 센서 개발, 복합재료 등의 소재기술, 신호처리 및 제어 기술 등을 보유하여 구조 건전성 관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무역 전문가 '양성의 산실' 위상

GTEP사업단, 무역구제 경연대회 우수상

대학생들을 무역 전문가로 키워내고 있는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이 대학생 무역 구제 관련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무역 전문가 양성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단 정재우(무역 3년) 학생 외 16명의 학생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17 전국 대학생 무역구제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에서 사업단 학생들

은 '중국산 옷셋 인체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무무조사'라는 주제로 지난 윤충원 지도교수와 지난 3개월 동안 아간을 이용해 꾸준히 연습해 온 것들을 펼쳐 보이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민호 단장(무역학과 교수)은 "이번 성과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무역구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맞물려 이뤄낸 것"이라며 "학생들이 무역 전문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학생 교육 등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